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 (2)

박 병 섭

韩国 嶺南大学校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 (2)

박병섭*

< 차례 >

1. 서론
2. 『동국문헌비고』 개찬설
3. 대한제국 칙령 41호
4. 『일본지지제요』의 『다케시마·마쓰시마』
5. 태정관 지령의 「다케시마 외 일도」
6. 『조선수로지』
7. 고유 영토론의 주장변화
8. 맺음말

【국문초록】

1. 시모조 마사오의 『동국문헌비고』 개찬설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가 주장하는 『동국문헌비고』 개찬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 먼저 이맹휴의 『춘관지』는 우산·울릉 일도설(一島說)이 아니다. 시모조는 『춘관지』의 “송도(松島)는 즉 우산도(芋山島)”라는 기술을 무시하여 “『춘관지』(「울릉도쟁계」)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라고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다음에 시모조는 『동국여지지』에 적힌 “우산도 울릉도 두

* 日本 竹島 = 獨島問題研究 Net대표.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라는 기술을 무시하고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의 다른 호칭(동도이명, 同島異名)” 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의적인 자료 인용에 근거한 시모조의 『동국문헌비고』 개찬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동국문헌비고』에 인용된 「여지지」는 전해지지 않으며 『동국여지지』와는 다르다. 불분명한 「여지지」의 원문에 관하여 고찰한다.

2. 대한제국칙령 41호의 석도(石島)

시모조는 석도를 『한국수산지』(1910)에 기술된 서항도(鼠項島)라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석도의 한국어 발음과 서항도의 일본어 발음 ‘ソコウトウ, 소코토’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수산지』의 원전인 수로부의 해도에 서항도는 ‘鼠項島 Somoku Somu’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소코토라고는 불리지 않았다. Somoku Somu는 이규원의 「울릉도외도」에 그려진 섬목(島項)에 유래한다.

3. 『일본지지제요』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일본의 관찬지지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에 기술된 다케시마(竹島)·마쓰시마(松島)에 관하여 메이지 시대의 지리학자인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는 『지학잡지』의 논설에서 『일본지지제요』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 밖으로 하였다고 기술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면 『일본지지제요』에서 한 쌍을 이루는 마쓰시마도 일본 영토가 아니다. 다케시마·마쓰시마의 페어는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킴으로 필자는 다나카가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밖으로 하였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시모조는 그것을 다나카의 “의사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 시모조의 견해는 근거가 없다.

4. 태정관지령의 ‘다케시마 외 일도’

시모조는 태정관(太政官)이 일본 영토 밖으로 한 ‘다케시마 외

일도(外一島)’에 관한 견해를 매년같이 바꾸고 있으며, 이렇다 할 정설이 없다. 최근에 시모조는 태정관 지령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후세의 자료인 『다케시마 고증(竹島考證)』을 인용하여 ‘외 일도’는 울릉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모조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태정관 지령 당시의 관련 자료에서 ‘외 일도’는 명확하게 독도를 가리킨다.

5. 『조선수로지』

시모조는 수로부의 『조선수로지』 「형세」의 기술이 조선의 동쪽 끝을 동경 130도 15분으로 하였으므로 조선의 강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로부는 조선의 강역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조선의 강역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도 가지지 않았다. 조선의 동쪽 끝을 동경 130도 15분으로 한다면 울릉도도 들어가지 않다. 즉 「형세」의 기술이 잘못된 것이다.

6. 고유 영토론의 주장 변화

일찍이 시모조는 일본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모양이니 주목된다.

주제어 : 시모조 마사오, 독도, 다케시마, 태정관, 동국문헌비고, 일본지지제요, 조선수로지, 고유영토

1. 서론

본지 제4호에 필자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의 논설을 분석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1년 후에 시모조로부터 “박병섭씨의 「시모조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독도연구』제4호)를 반박한다.”라는 제목의 반론이 시마네현 ‘Web 다케시마 문제연구소’ 사이트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제21회)에 게재되었다. 그러

나 유감스럽게도 필자의 핵심적인 지적을 무시한 채이다.

필자의 중요한 지적 중 첫 번째는 시모조는 『동국여지지』의 기술에 있어서 우산·울릉을 같은 섬으로 보았지만 『동국여지지』는 “우산도 울릉도…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라고 기술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를 각각 다른 섬으로 보았기 때문에 시모조의 주장은 출발부터 잘못되어 『동국문헌비고』의 개찬설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한 필자의 두 번째 지적은 메이지 시대의 태정관이 일본의 영토 밖으로 하달한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하여 시모조는 매년같이 자기 견해를 바꾸고 있어 정설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시모조는 「실사구시」(제22회)에 있어서 “박병섭씨의 「메이지 정부의 다케시마=독도인식」(『北東アジア文化研究』제28호)을 반박한다.” 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자기 견해를 여러 번 바꾼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시모조는 ‘외 일도’를 독도라고 한 것이 잘못인지, 울릉도라고 한 것이 잘못인지, 이자택일(二者擇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아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애매한 채이다.

이 글은 이러한 시모조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논점으로 시모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국여지지』는 『동국문헌비고』가 인용한 「여지지」인지 아닌지 등을 논하려 한다. 또한 최근 시모조가 주장하는 대한제국 칙령 41호의 석도(石島)를 서항도(鼠項島, 관음도)라고 하는 주장이 타당할지 아닐지 등도 검토한다.

2. 『동국문헌비고』개찬설

1) 개찬설 논쟁의 요약

2008년 봄, 일본의무성은 처음으로 다케시마=독도 문제에 관한 팸플릿 『다케시마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열 가지 포인트』를 발행했다. 팸플릿에는 『동국문헌비고』(1770)의 기술 “여지에서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다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왜가

이르느바 송도(松島)이다.” 를 문제 삼아 “『여지지』 본래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으로서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로부터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라고 썼다.

이 서술은 시모조 마사오의 『동국문헌비고』 개찬설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모조는 『동국문헌비고』가 인용한 「여지지」는 규장각에 소장 되어있는 『동국여지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뒤에 서술하겠으나 의문스러운 점이다.) 다음으로 시모조는 『동국여지지』에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 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여지지」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을 부르는 다른 이름(동도이명, 同島異名)”¹⁾이라는 주장을 했다. 따라서 『동국문헌비고』에 “輿地志云 蔚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라고 적힌 것은 신경준이 『동국여지지』를 개찬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독도연구』 제4호(p. 74)에서 시모조의 논설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동국여지지』는 다만 부가적인 일설로서 우산도와 울릉도를 같은 섬이라고 기술했으나 본래의 설은 “우산도 울릉도…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속에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결코 우산도와 울릉도를 같은 섬이라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두 개의 섬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 즉 『동국여지지』는 『동국여지승람』을 이어받아 우산·울릉 1도설(一島說)이 아니라 2도설이며, 시모조의 개찬설은 그 출발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이 지적에 대해 시모조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무래도 시모조는 쟁점의 핵심이 되는 논의를 피하려 하는 듯하다. 시모조가 『동국여지지』에 적힌 “우산도 울릉도…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1)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文庫, 2004, p.101.

2) 『동국여지지』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우산과 울릉 2도설이 본설이다.
우산도 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끈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바람과 날씨가 청명하면 봉우리 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들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 울릉이 한 섬으로서 지방이 백 리라고 한다.

가운데 있다.” 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한다면, 이 문제로 학문적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시모조처럼 『동국여지』의 중요한 구절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지 “일설에 우산 울릉도는 본래 한 섬”이라는 부가적인 구절만을 인용하여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을 부르는 다른 이름(동도이명)”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인용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듯 『동국여지』의 한 부분만을 마음대로 인용한다면, 시모조처럼 『동국여지』는 우산과 울릉을 같은 섬으로 보고 있다고 잘못 해석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즉 본래 『동국여지』는 우산도와 울릉도 2도설임에도 불구하고, 『동국여지』는 1도설을 취하고 있다는 곡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인 인용을 근거로 한 논설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 시모조의 『춘관지』 해석

시모조는 필자에 대한 반박이라고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피해 “왜 박병섭 씨는 이맹휴의 『춘관지』에 대한 논의를 회피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시하여 논점을 다른 곳에 두었다. 필자가 『춘관지』에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개찬설 논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모조로부터 의문이 제시됐으니 아예 그에 답하여, 아울러 시모조의 『춘관지』에 대한 해석이 잘못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먼저 『춘관지』의 개요를 보고자 한다. 『춘관지』는 예조가 조선 왕조의 의례와 외교사례를 모아서 편찬한 관찬서이며, 이맹휴가 1744(영조20)년에 저술하고 1781년에 이가환이 교정했다고 한다.³⁾ 다만 어느 정도의 교정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

3) 송병기, 「獨島(竹島)問題의 再檢討」, 『동북아역사논총』, 18호, 2007, p. 297.

『춘관지』는 제3권에서 울릉도 쟁계를 다루고 있으나 이 부분이 신경준 『강계고』(1756)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 쟁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숙종 조(일본의 겐로쿠 기, 元祿期)에 조·일 양국이 울릉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논쟁한 외교 교섭을 말한다. 이 사건을 다룬 『춘관지』 「울릉도 쟁계」는 크게 나누어 다음 세 부분에서 구성된다.

- (1) 머리말; 신라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울릉도의 역사
- (2) 광해군 이후의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 양국 간의 교섭, 울릉도 쟁계(다케시마 잇켄)
- (3) 안용복의 활동

신경준은 『춘관지』 기사의 일부를 『강계고(疆界考)』에, 나아가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인용하였다고 보이는데 『춘관지』와 『강계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다른 점이 있다.

(1) 울릉도의 임진왜란까지의 역사에 관해서는 『춘관지』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우산도·울릉도’ 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본설에서 우산·울릉을 두 섬이라고 한 뒤 “일설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본래 한 섬”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한편 『강계고』는 우산·울릉 일도설을 부정하고 서두에 “두 섬 중 하나는 우산도”, 마지막에 “두 섬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쓰고 2도설로 일관하였다. 『춘관지』와 『강계고』는 『동국여지승람』의 인용문을 제외하면 공통점이 거의 없어, 각각 독자적인 견해를 쓰고 있다.

(2) 광해군 이후의 조·일 교섭에 관하여 『춘관지』는 조·일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관한 교섭 기사를 상세하게 쓰고 있으나, 『강계고』는 교섭 과정을 발췌하였다.

(3) 안용복의 활동 기사에 관해서는 『춘관지』와 『강계고』의 내용은 거의 같다

시모조는 『춘관지』에서 특히 (1)의 역사에 주목하고, 그 중 “우산 우릉(羽陵) 울릉(蔚陵) 무릉(武陵) 의죽(磯竹) 모두 음이 와전(訛轉)되었다. (A)” 라고 적힌 것을 들어, “이맹휴의 『춘관지』(「울릉도 쟁계」)에서는 우산도를 울릉도라고 하였다.⁴⁾”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에 적힌 우산은 문맥상으로 신라시대의 우산, 즉 우산국(울릉도)을 가리키고 있으며, 울릉도 쟁계(1693~9) 당시의 우산도를 『춘관지』가 울릉도와 동일시한 것은 아니다. 원래 (1)울릉도의 역사 부분에 있어서 임진왜란(1592) 이후의 우산도는 대상이다. 임진왜란 이후의 우산은 (3)안용복의 활동 속에 우산도(芋山島)로 등장하며 울릉도와 다른 섬으로 기술되었다. 이 우산도(芋山島)는 물론 우산도(于山島)의 음이 와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조는 芋山島에 관한 기술을 무시하고 “『춘관지』에는 우산도를 울릉도라고 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명백한 자료의 자의적인 인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춘관지』에서 우산도는 “용복은 (울릉도로부터 일본인을, 필자 주) 뒤쫓아 송도(松島)에 이르러서는 ‘송도는 곧 芋山島인데 너희들은 芋山島도 우리나라 국경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고 욕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런데도 시모조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별칭이라고 한 이맹휴의 울릉도 인식은 신경준의 『강계고』가 완성된 1756년에 완전히 바뀌어, 나중에 우산도가 왜의 소위 송도라고 여겨지는 계기가 되었다.”⁵⁾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맹휴 『춘관지』는 “우산도를 울릉도의 별칭으로 한다.” 라고 하기는커녕 우산도와 울릉도를 다른 섬으로 한 위에 “송도는 곧 芋山島”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강계고』나 『동국문헌비고』에 적힌 ‘우산도’의 기사는 결코 신경준이 처음이 아니며, 이맹휴의 견해를 이어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모조의 송도에 관한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시모조가 『춘관지』에 적힌 구절 ‘송도는 곧 우산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4) 시마네현 「Web竹島問題研究所」 사이트, 「實事求是」 제21회, “朴炳涉氏の「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獨島研究』第4号)を駁す”.

5) 下條正男, 「獨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 19호, 2008, p.24.

3) 「여지지」는 『동국여지지』인가?

시모조는 오상학 논문⁶⁾의 영향을 받아 “『여지지』는 유형원(柳馨遠)이 1656년경에 편집한 『동국여지지』이다.” 라고 쓰고,⁷⁾ 필자도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신중히 두 책을 검증하기로 한다.

안정복(安鼎福)에 의하면 「여지지」는 1656년에 유형원에 의하여 저술했다고 한다.⁸⁾ 또한 『강계고』 「전 조선국」조에 “반계 유형원 여지지에 전하기를……” 라고 적혀 있으므로 「여지지」는 유형원의 저작임은 확실하다.

한편 『동국여지지』의 저자는 박인호에 의하면 유형원이라고 하지만⁹⁾ 확실하지 않다. 성립 연대는 양보경에 의하면 그 기사 내용 속에 현종(재위 1659~1674)을 ‘금상’ 이라고 한 표현 등이 있으므로 1659년 이후다.¹⁰⁾ 문헌의 구성은 유미림에 의하면 『동국여지지』는 전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지지」는 전부 13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¹¹⁾ 이렇게 성립연대나 구성이 다르므로 『동국여지지』는 「여지지」와 다른 문헌이다. 또한 『동국문헌비고』에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다 우산국의 땅” 이라고 적혀 있으나, 『동국여지지』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는 것도 「여지지」와 『동국여지지』가 별개의 문헌임을 나타내는 방증이 된다. 더욱이 신경준만이 아니라, 『동국문헌비고』에 비판적인 안정복도 『잡동산이(雜同散異)』에서 「여지지」를 인용하여 『동국문헌비고』와 똑같이 “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라고 적고 있다. 안정복은

6)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1호, 주34, 2006, p.99.

7) 下條正男, 앞의 논문, 2008, p.19.

8) 安鼎福修輯, 「磻溪先生年譜」, 『增補磻溪隨錄』, 景仁文化社, 1974, p.565.

9) 朴仁鎬,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淸溪史學』6, 1989.

10) 양보경, 「磻溪柳馨遠의 地理思想」, 『문화역사지리』 제4호, 1992, p.35.

11) 유미림, 「한국 문헌의 ‘울릉·우산’ 기술에 관한 고찰」

『동양정치사상사』 8권 1호, 2009, p. 202.

『동국문헌비고』는 단기간에 완성됐기에 소루하고 체제의 통일성이 결여된 단점이 있다고 문헌을 비판하고 있으나¹²⁾, 이 안정복도 「여지지」를 『동국문헌비고』와 똑같이 인용한 것은 중요하다. 게다가 안용복 사건에 관하여 『잡동산이』는 『동국문헌비고』의 기술을 일부 수정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보다 신뢰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잇켄) 당시의 쓰시마번 태수를 『동국문헌비고』는 다이라 요시노부(平義信)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으나 『잡동산이』는 올바르게 다이라 요시쓰구(平義倫)라고 하였다. ‘다이라’라는 성은 소(宗)씨의 대외적인 성이다. 또한 『춘관지』도 올바르게 다이라 요시쓰구라고 썼으나 이것은 처음부터 다이라 요시쓰구라고 되어 있었는지, 혹은 1581년에 정정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혹시 『춘관지』는 당초 다이라 요시노부라고 잘못 쓰고 있었다면, 『강계고』나 『동국문헌비고』는 『춘관지』의 「안용복」조를 그대로 게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1581년에 행해진 『춘관지』의 교정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행했음을 시사한다. 『춘관지』와 『강계고』의 성립 과정을 생각함에 있어서 다이라 요시쓰구는 참고할 만한 키워드가 된다. 한편 후세의 『증보문헌비고』나 『만기요람』에서는 『동국문헌비고』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다이라 요시노부라고 잘못 적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여지지」를 『동국여지지』와 동일시하는 시모조의 견해는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여지지」는 실전됐으므로 『동국문헌비고』 등에 있는 「여지지」부터의 인용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4) 「여지지」부터의 인용문의 범위

실전된 「여지지」는 『강계고』를 시작으로 『동국문헌비고』, 『잡동산이』,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인용되었으나 이들 인용

문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인용문이고 어디부터가 각 저자의 견해인지 확실하지 않다. 먼저 『동국문헌비고』에 있어서 “울릉과 우산은 모두다 우산국의 땅”이라는 구절은 「여지지」의 기술임이 문맥상으로 보아 확실하지만, 이에 이어진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송도”라는 부분도 「여지지」로부터 인용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¹³⁾ 이 문제를 연구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郎)는 『증보문헌비고』를 1917년부터 일본어로 번역 출판했는데, 그 중에서 아오야기는 「여지지」의 인용은 “울릉과 우산은 모두다 우산국의 땅”이라는 부분만이라고 판단하여 “여지지에 전해지기를 울릉 우산은 모두다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송도이다.”¹⁴⁾라고 적었다. 구두점은 원문 그대로인데 이 번역본에서는 종지부의 마침표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쉼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오야기는 「여지지」의 인용문을 “울릉과 우산은 모두다 우산국의 땅”만으로 본 것이 명백하다.

다음은 신경준 『강계고』인데 「여지지」의 인용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원문 “愚按輿地志云 一說于山鬱陵本一島 而考諸圖志二島也 一則倭所謂松島 而蓋二島俱是于山國也”

송병기 “一說에는 于山과 鬱陵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圖志에서 相考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倭가 이르는바 松島인데, 대개 두 섬은 모두다 于山國이다.”¹⁵⁾

유미림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圖志)를 상고해 보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¹⁶⁾

12)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卷5, 『與洪判書書』; 유미림, 앞의 논문, p.201.

13) 유미림, 앞의 논문, p.202

14) 靑柳綱太郎, 『原文 和譯對照 增補文獻備考』, 朝鮮研究會, 1917.

15) 송병기, 앞의 논문, p.295.

16) 유미림, 앞의 논문, p.199.

시모조 마사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¹⁷⁾

이 중에서 시모조의 해석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 만으로 인용문이 끝나는 것은 문맥상으로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일설 이외의 다른 설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이어져야만 한다. 한편 유미림의 해석인데 『동국문헌비고』에 “여지지에 전하기를 울릉·우산은 모두다 우산국의 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계고』의 “대개 두 섬은 모두 다 우산국이다.” 라는 구절은 신경준이 「여지지」의 기술을 자기의 결론으로 고쳐 쓴 것으로 보았다. 이 생각은 타당하나 한편으로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 라는 구절이 「여지지」에 적혀 있었는지 어떤지는 문제다. 왜냐하면 여지지가 완성된 1656년 당시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울릉도를 일본의 이소타케시마(磯竹島)(『지봉유설』, 『춘관지』), 혹은 竹島(『춘관지』)라고 기술한 사서는 있지만, 송도란 이름을 기술한 사서는 안용복 사건 이전에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안용복 사건 이전에는 우산도를 송도라고 하는 자료는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조선과 가장 관계가 깊은 쓰시마 번은 1620년에 울릉도에서 잠상(潛商)인 이소타케 야자에몬(磯竹弥左衛門) 부자를 체포한 적이 있으나,¹⁸⁾ 그 쓰시마 번도 우산도의 이름은 안용복을 심문하여 처음으로 알았다. 이 심문 직전에 부산에 있는 왜관은 쓰시마 번의 명령에 따라 울릉도 주변 섬의 조사를 하였는데, 그 때에 처음으로 울릉도 동북쪽에 ‘부룬세미’ 라는 섬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우산도나 송도 이름은 몰랐다. 부룬세미는 우산도를 가리키는 것 같다.¹⁹⁾ 또한 울릉도를 둘러싼 조·일간의 울릉도 영유권 교섭에서 우산도나 송도 이름은 일체 등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에도막부(江戸幕府)는 안용복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송도의 존재조

차 몰랐으며, 돛토리번(鳥取藩)에게 특별히 문의를 하여 처음으로 송도를 알았을 정도였으므로 문제외다.²⁰⁾ 그 돛토리번은 송도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산도임은 안용복의 활동에 의해 처음으로 알았던 것이다.²¹⁾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안용복이 1696년에 “조·울 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기(朝鬱兩島 監稅將 臣 安同知 騎)” 라고 적은 깃발을 달고 도일했는데 그 때 돛토리번에서 처음으로 “우산도는 일본에서 송도라 부른다.” 라고 이해됐던 것이다. 이렇듯 에도막부나 일본에서 송도와 관계가 있을 만한 지방은 안용복 사건 이전에 우산도가 송도라는 인식은 없었다. 따라서 우산도가 송도라는 인식이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전해졌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송도의 인용 방법이 『강계고』와 『동국문헌비고』에서 달라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계고』에서는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 라고 적힌 반면 『동국문헌비고』에서는 “우산은 왜가 이르는바 송도” 라고 적혀있다. 두 개의 다른 표기가 다 「여지지」의 원문이라고 보는 것은 문맥상으로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송도는 원래 「여지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송도에 대한 인식은 송도를 목격한 안용복이 1696년에 자산도는 송도라고 주장한 데에서 생겼다고 보인다. 그 안용복의 주장이 조·일 양국에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신경준이 이 지식을 받아들여 『강계고』에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 라는 구절을, 『동국문헌비고』에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 라는 구절을 추가하고, 안정복도 『잡동산이』에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 라고 기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여지지」의 원문은 “울릉과 우산은 모두다 우산국의 땅”,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나 여러 도지를 살펴보면 두 개의 섬이다.” 라고만 기술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7) 下條正男, 앞의 책, p.101.

18) 『通航一覽』129.

19) 박병섭, 『안용복사건에 대한 검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pp.15~

20) 鳥取藩政資料, 『竹島之書付』.

21) 『因幡志』, 筆記之部.

5) “홍계희의 윤색”의 의미

시모조는 『동국문헌비고』 「여지지」나 그것을 담당했던 신경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승정원일기』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영조 46년(1770)년 윤 5월 2일 조에 의하면, 『동국문헌비고』의 상전문(上箋文)을 쓴 김치인은 그 편찬과정에 관하여 “(신)경준이 초창하고 (홍)계희 윤색함”이라고 썼다. (『동국문헌비고』, 필자 주) 「여지고」는 신경준의 『강계고』를 원본으로 하고 있으나, 그 편찬의 과정에서 홍계희라는 인물이 손을 대서 문장을 윤색하였다, 라고 한다.²²⁾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에 의하면 시모조의 지적은 “편견에 의한 사료의 오독”이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승정원일기』의 해당부분을 제시한다.

上問啓禧曰 卿與申景濬 相議校正云 果何如 啓禧曰 景濬所見甚博 而或有越趨者 與臣斷定矣 致仁曰 景濬草創而啓禧潤色矣

시모조가 인용한 『승정원일기』는 “신경준의 관점은 아주 넓다.”라고 쓰고 있으며 오히려 신경준을 칭찬하였던 것이다. 이 글에 이어진 구절을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자저(越趨)’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려고 하면서도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홍계희에 따르면 신경준은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풍부하기 때문에)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결단을 내리지 못 할 때가 많았다. 그것을 홍계희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기술로 단정하여 나갔다고 한다. 이것을 듣고 김치인

이 “초창(草創)하고 계획이 윤색함”이라고 감상을 적은 것이다. ‘윤색’이라는 말에는 “이야기를 본래와는 다르게 과장하거나 어떤 의도 하에 만들어 바꾸는 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보충하거나 지도하는 것, 또는 덧붙이는 것”이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양쪽 모두 『日本國語大辭典』 제2판). 위의 사료에 나오는 ‘윤색’이란 말은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²³⁾

이케우치는 문맥상의 ‘윤색’은 “보충하거나 지도하는 것, 또는 덧붙이는 것”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모조는 홍계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을 왜소화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시모조가, 필자 주) 인용한 문장은 하나는 편견에 근거한 사료의 오독 때문에 사실이 왜소화 된 것에 의한다. 또 하나는 “홍계희라는 인물”이라고 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장은 필자가 홍계희라는 인물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연유한다. 폭넓은 관점으로 해당시기를 조망하는 시점을 갖지 못하면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²⁴⁾

여기에서도 시모조는 자료의 일부분 “치인이 말하기를 경준이 초창하고 계획이 윤색함”만을 들어, 이에 이어진 “신경준은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풍부하기 때문에)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 결단을 내리지 못 할 때가 많았다. 그것을 홍계희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기술로 단정하여 나갔다고 한다.”를 무시하고 김치인의 의도와는 반대로 신경준이나 홍계희, 나아가서 『동국문헌비고』의 신뢰성을 깎아 내리는 기술을 하였다. 이것도 자료의 자의적인 인용이다.

3. 대한제국칙령 41호

23) 池内敏, 『外交文書と以酏庵輪番制』, 平成18年度~19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費(C))研究成果報告書, 2008, pp.71~72.

24) 상동.

22) 下条正男, 앞의 책, p.102.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공포하고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그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하였다. 이 석도는 오늘날의 독도이며, 대한제국이 독도를 지배했다는 유력한 근거로 된다. 시모조는 이 석도에 관한 견해를 여러 번 바꾼 것은 전의 논문에 쓴 대로이지만,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논설 “석도는 지금의 관음도”²⁵⁾

2004년 저서 “석도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²⁶⁾

2006년 팸플릿 “석도는 이규원이 島項이라고 보고한 지금의 관음도라는 것이 타당”²⁷⁾

시모조가 매번 견해를 바꾼 이유는 애매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시모조는 석도를 관음도라고 하는 근거를 이렇게 적었다.

석도는 도항(島項, 관음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1910년에 발행한 『한국수리지』에서 죽서(竹嶼, チクトウ)와 서항도(鼠項島, 관음도)의 두 섬을 울릉도의 속도로 하고 다이쇼(大正) 9년에 발행한 『일본수리지』에서도 竹島(죽서)와 쌍항초(雙項礁, 관음도) 두 섬을 속도로써 답습하고 있다. 서항도와 쌍항초는 각각 ‘소코토(ソコウトウ)’, ‘소코쇼(ソウコウショウ)’라고 읽어 ‘칙령41호’에 기재된 석도의 한국어 발음인 ‘소쿠토(ソクトウ)’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²⁸⁾

시모조는 석도의 한국어 발음과 서항도(관음도)의 일본어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석도를 관음도라고 한 것이다. 놀랄 수밖에 없

는 발상이다. 과연 시모조가 말하는 것처럼 석도는 ‘소쿠토(ソクトウ)’라고 불렀을까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로 한다.

울릉도의 지명은 때때로 혼동된다. 예를 들어 1905년 당시의 지도에서 울릉도 동북에 있는 죽암(竹岩)은 일본어로 ‘테바위, テバヲ’라고 토가 달렸고 동남에 있는 저동(苧洞)은 ‘모시게, モシゲ’라고 토가 달렸다.²⁹⁾ 또한 수로부가 1909년에 작성한 해도 306호(도판1)에도 각각 Tei bau, Mosike라고 적혔다. ‘테(テ)’나 ‘Tei’는 대나무의, ‘바위(バヲ)’나 ‘bau’는 바위의 발음이 일본식으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모시(モシ)’는 한국어로 모시풀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칙령 41호에 등장하는 竹島는 1904년의 일본 공문서에서 ‘테쓰세미(テツセミ)’³⁰⁾ 혹은 ‘뎃세미(テッセミ)’³¹⁾로 기록되었다. ‘테(テ)’는 대, ‘쓰(ツ)’나 ‘스(ッ)’는 한국어의 단어를 접속하는 축음, ‘세미(セミ)’는 섬이 변한 것이다. 또한 도판 1의 해도에는 竹島가 ‘竹嶼 Tei Somu’라고 적혔다. Somu는 섬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한편 석도의 발음을 기록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석도도 역시 혼독으로 불렸을 것이다. 이 혼독은 1883년 당시에는 울릉도 거주자의 82%를 전라도 출신자가 차지하였으므로,³²⁾ 그들 전라도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독은 전라도 사투리로 돌(石)을 의미한다. 독섬은 지금도 때때로 독도의 호칭으로 사용되며 1948년 당시는 흔히 사용됐던 호칭임을 미국의 공문서에서도 판명되어 있다.³³⁾ 그 해 한국의 우국노인회(Patriotic Old Men's Association)는 연합군 SCAP의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의 영토로서 울릉도, 대마도, 파랑도와 더불어 Docksum(독섬)을 인정하도록 탄원서를 제출했다. 독섬은 독도를 가리킨다.

29) 奥原碧雲(福市), 『鬱陵島見取図』, 『竹島及鬱陵島』, 報光社(松江), 1906.

30) 外務省, 『韓国鬱陵島事情』, 『通商彙纂』234호, 1902 p. 43.

31) 外務省資料, 616-10, 『明治三十五年 鬱陵島狀況』, 『釜山領事館報告二』, 1905.

32) 李奎遠, 『鬱陵島檢察日記』, 1883.

33) 한국 우국노인회가 SCAP에게 보낸 Dock-seom등에 관한 탄원서.
http://dokdo-research.com/page30.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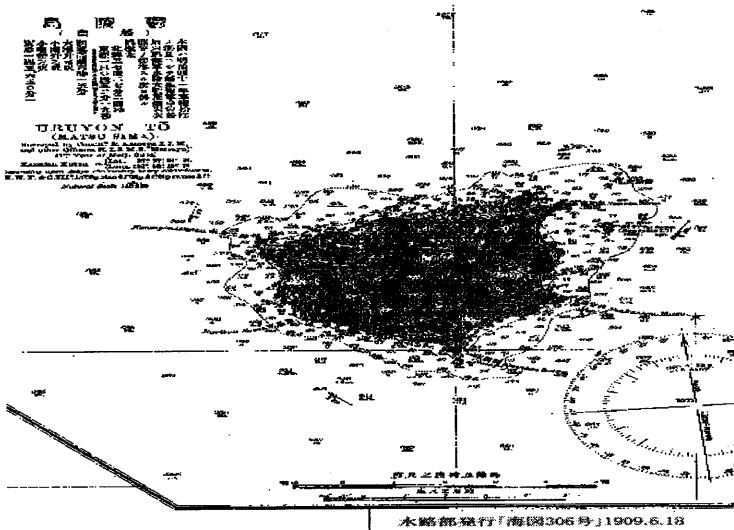
25) 下條正男, 『竹島問題, 金炳烈氏に再反論する』, 『現代コリア』, 제391호, 日本朝鮮研究所, 1999, p.52.

26) 下條正男, 앞의 책, p.112.

27) 下條正男, 『発信 竹島』, 山陰中央新報社, 2006, p.22.

28) 下條正男, 『獨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제19호, 2008 p.30.

다음으로 관음도를 살펴본다. 시모조는 위에 쓴 바와 같이 칙령 41호 공포 10년 뒤의 자료인 『한국수리지』로부터 서항도를 인용했으나, 자료를 검증하려면 먼저 칙령 발표 이전의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후세의 자료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칙령이 공포된 1900년에 부산에 주재한 일본영사관보 아카쓰카 쇼수케(赤塚正助)가 울릉도 한·일 공동조사에서 얻은 지도에 의하면 관음도는 서항도가 아니라 島牧이다³⁴⁾. 이는 1882년 이규원이 작성한 「울릉도 외도」에 나오는 관음도의 옛 이름인 島項이나 일본 내 무성 소서기관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가 1883년에 얻은 지도의 島項³⁵⁾에서 유래한다. 이들은 모두 ‘섬목’ 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島의 훈독은 섬이고, 項의 훈독은 목이다. 또 島牧은 섬목과 음이 서로 통하므로 히가키는 ‘목’ 자의 표기를 표의문자가 아닌 표음문자를 써서 ‘牧’ 이라고 쓴 것 같다.



<그림1> 수로부 발행의 해도306호(1909년)에 그려진 울릉도

34) 주25 부속 지도.

35) 「朝鮮國蔚陵島出張 檜垣内務少書記官復命ノ件」, 『公文別録』, 内務省, 明治15~16年.

마찬가지로 섬목을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 서항도이다.³⁶⁾ 서항도는 시모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소코토(ソコウトウ)’ 라고 불렀던 것은 아니다. 『한국수산지』 부속지도의 원전인 수로부 발행의 해도 306호 <그림 1>에 의하면 서항도의 일본식 발음은 Somoku Somu다. 이것은 섬목(섬)의 발음이 일본식으로 변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서항도는 석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석도를 서항도라고 한 시모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2> ‘鼠頂島 Somoku Somu’ 및 ‘竹島 Tei Somu’, ‘雙頂礁’ 부근 확대도

또한 서항도를 석도라고 하는 견해를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연구소의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도 채택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Gerry Bevers씨에 의하면 ‘서항도’의 일본어 발음은 ‘소코토(ソコウトウ)’이며,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기재된 석도의 발음

36) 農商工部『韓國水産誌』第二輯 부속 지도 ‘울릉도전도(鬱陵島全圖)’에서는 ‘鼠頂島’라고 적히고 본문에 서는 ‘鼠項島’ p.707라고 적혀 있다. 이 섬의 원전은 도판1 해도라고 생각되므로 ‘鼠頂島’는 ‘鼠項島’의 잘못된 것 같다.

‘소쿠토(ソクト)’와 비슷하기 때문에 석도라는 이름의 유래는 ‘서항도’라고 하고 있으며, 이 설은 대단히 흥미있고 참신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즉 석도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게 되었다.³⁷⁾

후나스기는 Bevers의 단순한 생각을 신중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참신한 의견」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지리학의 전문가를 자임하는 후나스기는 그 당시의 역사지리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안이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시모조는 ‘쌍항초(雙項礁)’를 관음도로 정하였는데 이것은 이중의 잘못이다. 먼저 ‘雙項礁’는 ‘쌍정초(雙頂礁)’의 잘못임을 시모조가 인용한 『일본수로지』에서 알 수 있다. 다음에 쌍정초는 섬이 아니고 도판 1이나 도판 2의 해도에 그려져 있듯이 죽도(죽서) 북쪽에 있는 암초이고 관음도가 아니다. 쌍정초는 시모조가 인용한 『일본수로지』 제10권 상(1910)에 다음과 같이 적혔다.

쌍정초

죽도(죽서)의 꼭대기에서 4도 1해리의 위치에 있다. 수심 반심(半尋) 및 3/4심으로 날씨가 거칠 때는 파도가 부서진다.(1심은 1.5m, 필자 주)

쌍정초는 두 개의 꼭대기를 가진 수면 하의 암초이다. 그것을 섬이라고 오독한 것은 ‘쌍정초’와 서항도의 시모조식 읽기가 비슷하다라는 선입관에 의한 것일까. 시모조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석도를 서항도로 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석도는 독도 외에 적합할 만한 섬이 없다.

4. 『일본지지제요』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최근 시모조 마사오는 「박병섭씨의 「메이지 정부의 다케시마=독

도인식」(『北東アジア文化研究』제28호)를 반박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Web다케시마문제연구소」사이트 「실사구시」(제22회)에 게재했다.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먼저 『일본지지제요』의 다케시마·마쓰시마를 다루겠다. 그에 대한 준비로서 『지학잡지』를 살펴본다.

1905년 다나카 아카마로(田中阿歌麻呂)는 도쿄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 발행의 『지학잡지』 200, 201, 202호에 연속해서 「오키노쿠니(隱岐國) 다케시마에 관한 구기(舊記)」를 게재했다. 이것은 지학잡지 196호의 잡보 「제국 신영토 다케시마」에 연이은 기사로, 196호와 200호의 제목에 적힌 ‘다케시마’는 말할 것도 없이 시마네현 고시로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이 된 ‘신영토 다케시마’ 즉 독도를 가리킨다. 다나카는 200호의 서두에 ‘다케시마’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했는데 그 문장은 시모조 마사오의 「실사구시」에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는데 중요하므로 길지않아 아래에 게재한다.

그 섬은 지난 2월22일 시마네현령으로 공연히 우리 제국의 범위에 들어가 행정상 오키도사(隱岐島司) 관할로 되었다. 그 당시 저는 이 섬이 외국인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및 지형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소개했지만(본지 제17년 196호 참조) 이 섬은 지난 5월 28일 일본해 해전에 의해 리앙코토 Liancourt Rocks암이란 명칭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지금 이 섬의 연혁을 따져보려면 그 발견연대가 불분명하나, 프랑스 배 리앙쿠루호의 발견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곳이었으며,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이 섬을 조선에 주었던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오키 혹은 호키(伯耆) 혹은 이와미(石見)에 속해 있었다. 메이지 초년에 이르러 정원(正院) 지리과에서 그(其)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에 출판된 많은 지도가 그 소재를 표기하지 않은 것 같다. 메이지 8년 문부성이 출판한 미야모토 산페이(宮本三平) 씨의 일본제국전도에는 이 섬을 기재하였으나 제국의 영토 밖에 두어 색칠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 해군 수로부의 『조선수로지』에는 리앙코토암이라는 제목에 리앙코토호의 발견과 기타 외국인의 측량 기사를 실었을 뿐이다. 따라서 연합함대사령장관보고 대해보(大海報) 제119호에 이것을 답습하여 리앙코토암이라 보도되어, 대본영해군 막료(大本營海軍幕僚)는 후에 이를 다케시마로 정정(…)하였다.

37) 竹島問題研究會編, 앞의 책, p.172.

위의 인용문에서 “이 섬”, “그 섬” 등은 ‘신 영토 다케시마’ 즉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정원 지지과에서 그(其)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에서의 ‘그(其)’ 는 또한 문맥상으로 다나카가 ‘신 영토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의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시모조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박병섭씨는 인용문을 조작하고 있다. 다나카 아카마로가 “그(其)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그(其)의 부분에 “(다케시마=독도, 필자주)” 를 삽입해서 다나카 아카마로도 ‘다케시마=독도’ 를 일본영토 밖으로 삼았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나카 아카마로의 의사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다나카는 ‘그(其)’ 로 ‘신 영토 다케시마’ 를 의미한 것이 분명하므로, 필자가 “(다케시마=독도, 필자 주)” 를 삽입한 것은 다나카의 ‘의사’ 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설명 부족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 원고에서 그것을 보충한다.

필자가 앞의 논문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다나카 아카마로는 한때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혼동하였다. 그는 잘못을 『지학잡지』 210호 에서 인정하여 정정했으나, 그 혼동이야 어찌 되었든, 태정관 정원 지지과(지리과는 잘못)의 『일본지리지』에 관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태정관 지지과가 작성한 관찬지리지 『일본지리지』의 기술을 다음에 제시한다. 『일본지리지』 50권 「오키」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이렇게 적혀있다.

○본주(本州)의 속도. 치부리군(知夫郡) 45. 아마군(海士郡) 16. 수키군(周吉郡) 75. 오치군(穩地郡) 43. 합계 179. 이를 총칭해 오키노코지마(隱岐の小島)라고 함.

○또한 서북방향으로 마쓰시마·다케시마 두 섬이 있음. 토속이 전하고 말한다. 오치군의 후쿠우라항(福浦港)으로부터 마쓰시마에 도착. 해로 약 69리 35정. 다케시마에 도착. 해로 약 100리 4정 남짓. 조선까

지의 해로 약136리 30정.

(1리는 4km, 1정은 110m, 필자주)

다나카는 “본주의 속도” 이외에 “서북방향에 마쓰시마·다케시마 두 섬이 있음” 이라고 적힌 “다케시마” 를 ‘신 영토 다케시마’ 로 착각해서 ‘다케시마’ 를 태정관 정원 지지과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지리지』에 적힌 다케시마는 위치로 볼 때 울릉도이며, 마쓰시마가 ‘신 영토 다케시마’ 즉 독도다. 따라서 이 책의 ‘신영토 다케시마’ 즉 독도를 인용하는 것이 다나카의 의사였으나, 그것을 옛날 이름인 다케시마(울릉도)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其)’ 다케시마가 울릉도이건, 아니면 ‘신 영토 다케시마’ 이건 간에 다나카 아카마로는 태정관 정원 지지과가 『일본지리지』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영토 밖으로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다케시마가 일본영토 밖으로 해석되므로 마쓰시마도 일본영토가 아니다 라고 해석된다. 이유는 『일본지리지』가 두 섬을 ‘다케시마·마쓰시마’ 와 같이 한 쌍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결코 다케시마만을 일본영토 밖으로 하고 마쓰시마를 일본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지 않고 두 섬의 소속을 똑같이 취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생각해서 필자는 앞의 원고에 “다나카는 그 논문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한때 혼동했으나, 그것이 어떠한 간에 관찬지지가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일본영토 밖으로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 결론은 다나카의 혼동이야 어떠한 간에 변함이 없다.

그런데 그 논문에서 ‘본주’ 를 큐슈나 홋카이도와 동격으로 다루었으나, ‘본주’ 는 ‘인슈(隱州)’ 라고 이해되므로 큐슈나 홋카이도와 동격으로 다룬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그 구절 “두 섬이 본주의 속도가 아니라면 물론 큐슈나 홋카이도의 속도도 아니다” 를 삭제 정정한다.

5. 태정관지령 「다케시마 외 일도」

시모조는 「실사구시」(제22회)에서 태정관의 ‘다케시마 외 일도(外一島) 영토외 지령’에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해 자기 주장이 흔들렸음을 자각하고 이렇게 적었다.

내가 나의 저서 『다케시마는 일한(日韓) 어느 쪽의 것인가』에서 “현재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다”라고 판단을 유보하고, 『발신 다케시마』에서 “현재의 다케시마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라고 쓴 것은 이상과 같은 일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다만 『소군(諸君)』처럼 지면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후에 근거를 제시한 뒤에 “『다케시마 외 일도』는 다 현재의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것을 박병섭씨는 “이렇듯 자기의 주장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다.”(p.38)라고 했으나 그것은 궤변이다.

이 글을 읽는 한 시모조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외 일도’를 “현재의 다케시마” 즉 독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울릉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다음 글을 읽으면 시모조는 ‘외 일도’를 “현재의 다케시마” 즉 독도라고 한 과거의 주장을 잘못이라고 인정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4년 후 메이지 14년(1881년) 8월 외무성의 명을 받들어 조사를 행한 기타자와 마사노부(北澤正誠)가 ‘외일도’에 해당하는 마쓰시마(松島)를 울릉도라고 판정하고, 그것이 메이지 정부의 견해가 된 사실이다.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다케시마 외 일도는 우리나라와 관계없음”이라 했던 마쓰시마는 1881년에는 울릉도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태정관지령과는 “관계없음”이었던 것이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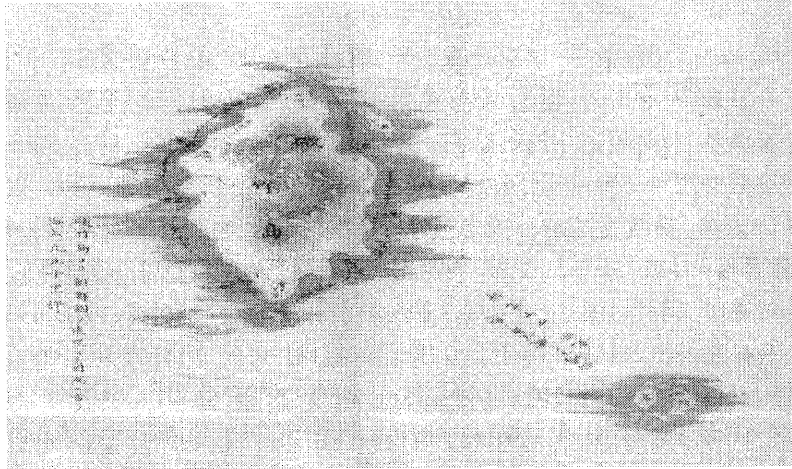
시모조는 1877년의 태정관지령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같은 시기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4년 후의 자료를 들어냈다. 이렇듯 후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같은 시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후세에 일어난 일은 사건 당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태정관지령의 경우 마쓰시마가 1881년에 가령 울릉도라고 외무성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1877년에 당사자인 내무성이나 태정관에 의해 마쓰시마가 울릉도라고 판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섬의 이름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에는 그때그때 마쓰시마가 어느 섬을 말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1877년 당시에 그것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태정관지령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1877년 태정관 지령 당시에 뚜렷하게 존재한다. 즉 앞의 논문에서 제시한 내무성 질의서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方伺)’에 첨부된 ‘유래의 개략’이나 ‘이소타케시마 약도’다. 그러나 이번에 시모조는 이러한 자료를 무시하고 인과관계를 갖지 못하는 1881년의 자료만 제시하였다. 그가 무시한 자료를 다시 제시한다.

먼저 ‘유래의 개략’이다. 내무성은 태정관의 판단을 청하기 위해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편찬방사’를 제출했으며, 그 안에 ‘외 일도’인 마쓰시마를 판단할 만한 ‘유래의 개략’을 첨부하였다. 그 지적편찬방사에 마쓰시마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래의 개략(由來の概略)’

이소타케시마(磯竹島) 혹은 다케시마라고 칭한다. 오키국의 북서 120리 정도에 있다. 주위 약 10리 정도이고 산이 준협하고 평지가 적다. 다음에 섬이 하나 있다.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른다. 주위는 약 30정 다케시마와 같은 항로에 있다. 오키에서 80리 정도의 거리다.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이 난다.

38) 下條正男, 「實事求是」第22回.



〈그림 3〉 내무성 ‘일본해내 대케시마 외일도 지적편찬방사’
부속지도 ‘이소타케시마 약도’의 이소타케시마(다케시마) 및
마쓰시마 부근 확대도. 마쓰시마(松島)는 분명히 독도이다.

마쓰시마는 주위 30정(3km) 대나무가 드물다라고 적혀있으므로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독도를 말한다. 울릉도는 ‘유래의 개략’의 서두에 적힌 주위 약 10리(40km)의 이소타케시마(다케시마)임은 명백하다.

더욱이 마쓰시마를 확실히 가리키는 첨부서류 ‘이소타케시마 약도’가 있다. 이것도 전의 논문에 실었으나 다시금 〈그림 3〉에 제시한다.

이들 자료에 의해 ‘외 일도’인 마쓰시마는 독도임에 틀림없으나 이러한 자료를 최근의 시모조는 무시하고 있는 듯하다. 내무성 및 태정관은 ‘이소타케시마 약도’나 ‘유래의 개략’을 보고 ‘다케시마 외 일도’ 즉 울릉도와 독도를 포기한 것이다. 후일의 기타자와 마사노부의 저작 등은 그 때에 존재 하지 않았으니 이와는 무관하다.

게다가 시모조 마사오는 “기타자와 마사노부가 ‘외 일도’에 해당하는 마쓰시마를 울릉도라 판단하고, 그것이 메이지 정부의 견해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으나, 이것 또한 틀린 것이다. 기타

자와 마사노부는 1881년에 저술한 『다케시마 고증(考證)』의 마지막 부분에 「현재의 마쓰시마는 즉 겐로쿠 12년 다케시마로 부르는 곳으로 예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밖의 땅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적었다. 즉 외무성에 제출된 ‘마쓰시마 개척원(願)’에 말하는 마쓰시마는 옛날에는 다케시마라고 불리던 조선의 울릉도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기타자와는 도다 헤이가쿠(戶田平學)의 ‘다케시마 도해지원(渡海之願)’ 등도 『다케시마 고증』에 실고, 여전히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경우도 같은 책에 기술했다. 마쓰시마가 언제나 울릉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다케시마 고증』을 요약한 「다케시마 판도 소속고」가 태정관에게 제출되고, 이를 받아들여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한 태정관 유달은 「북위37도...에 위치하는 일본에서 부르는 마쓰시마 일명 다케시마, 조선에서 부르는 울릉도의 일은...」라고 적었다.³⁹⁾ 울릉도는 마쓰시마 이외에 혹은 다케시마라고도 불렀던 것을 태정관은 명시했다. 이렇듯 1883년 당시에는 도명의 혼란이 심해서 에도시대에 마쓰시마로 불리던 독도는 메이지 시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마쓰시마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메이지 시대의 지도로 말하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조사에 의하면 1885년까지 마쓰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6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8건이다.⁴⁰⁾ 더욱이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지어 일본 영토로 한 내각회의 결정 후에서 조차 현지의 당국자는 울릉도를 ‘울도’ 혹은 ‘다케시마’라고 불렀다.⁴¹⁾ 이처럼 문헌상의 마쓰시마는 그때그때 울릉도를 가리키는지, 독도를 가리키는지를 신중히 가늠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1877년의 태정관 지령에서의 마쓰시

39) 外務省資料3824, 『朝鮮國蔚陵島へ犯禁渡航の日本人を引戻し処分一件』.

40)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복각판), 1996, pp.29-30.

41) 朝鮮總督府, 『慶尙北道鬱島水産狀況(慶尙北道報告)』, 『朝鮮彙報』, 1915년 3월 1일호, p.79.

“강원도 울진군 죽변의 동북쪽 약 80해리 떨어진 해상에 돌연히 솟아 있는 고도(孤島)를 울도라고 칭하며 내지인(內地人)은 이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마는 ‘이소타케시마 약도’ 나 ‘유래의 개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6. 『조선수로지』

시모조는 필자의 논문 「메이지 정부의 다케시마=독도인식」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해군성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인식”에 관하여

박병섭씨는 “리앙코루토 열암은 『조선수로지』에만 기재되어, 같은 시기의 『일본수로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 할만하다” (p.45) 라고 하고, “수로부가 리앙코루토 즉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본” (p.46)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수로지』의 기술을 곡해한 것으로 그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메이지 27년 발행의 『조선수로지』(형세, 形勢)에서는 조선의 경역(境域)을 “동경 124도 30분부터 130도 35분까지 달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 당연히 그 안에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는 리앙코루토열암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²⁾

시모조는 일본 수로부가 생각하는 조선의 경역으로부터 독도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법을 펼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단순한 오해일 뿐이다. 원래 일본의 수로부는 일본 해상의 국경을 판단하는 기관이지, 조선의 국경을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로부는 조선의 경역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수로부가 조선의 동쪽 끝을 동경 130도 35분이라고 한정 지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경역에는 울릉도조차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울릉도의 중심은 시모조가 인용한 『조선수로지』 256쪽에 “동경 130도 53분”이라고 적혀있으니, 수로부의 말대로라면 조선의 경역 밖에 있는 셈이다. 설

42) 下條正男, 「實事求是」 제22회.

마 시모조는 『조선수로지』(형세) 동쪽 경역에서 울릉도가 벗어나 있으므로 울릉도도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과연 『조선수로지』를 곡해하고 있는 것은 필자일까? 덧붙여 말하면 이 문제에 관해 후나스기 리키노부는 이렇게 적었다.

『조선수로지』…제1편 총론 형세의 부분에 조선국의 범위를 적고 있다. 조선국의 범위 동쪽 끝으로는 동경 130도 35분이라고 적었다. 『조선수로지』에는 울릉도(중심)는 동경 130도 53분 리앙코루토열암은 (현재의 다케시마)는 동경 131도 55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조선국의 동쪽 경계 끝은 울릉도이며, 현재의 다케시마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³⁾

이 문장에는 모순이 있다. 후나스기는 조선의 동쪽 경계 끝을 130도 35분으로 한다면 동경 130도 53분의 울릉도는 조선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국의 동쪽 경계 끝은 울릉도” 라고 적고 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7. 고유 영토론의 주장 변화

최근 시모조는 고유영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서 주목할 만하다. 일찍이 시모조는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외무성 등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러일전쟁 이전에, 필자 주) ‘무주지(無住地)’였다. 따라서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연구소, 필자 주)의 중간보고에서는 ‘고유영토’ 론을 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외무성이 다케시마 관련 홈페이지를 “(한국이, 필자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바꿔 쓰고, 문과성(文科省)이 다케시마를 ‘고유영토’라고 발언한다면 한국측이 반발하는 것은

43) 竹島問題研究会編, 앞의 책, p.154.

당연하다.⁴⁴⁾

다케시마 문제연구회가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을 취하지 않았던 것은 시모조의 의견에 따른 바가 크다. 시모조는 “외무성 등이 말하는 ‘고유영토’라는 주장에는 위화감을 느낀다.”⁴⁵⁾라고 썼다. 그 때문에 시모조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시마네현이 발행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팜플릿 『포토 시마네』 161호 「특집 다케시마」 등에는 고유영토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시모조는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케시마 고유 영토’론으로 전환한 모양으로 이렇게 적었다.

다케시마를 고유영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본뿐이다. ‘고유영토’는 북방영토처럼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도 통치된 적이 없는 영토를 말한다. “무주지”이었던 다케시마는 적어도 1905년부터 전쟁 전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일본의 영토를 침략한 한국 측에는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⁴⁶⁾

시모조가 독도를 러·일 전쟁 이전에는 무주지였다고 하는 근거는 맨 처음에 쓴 바이다. 즉 그는 『동국문헌비고』에 쓰인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라는 구절은 신경준이 『동국여지지』를 개찬한 것으로 보고, 그 후에도 한국은 독도를 영유한 적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국문헌비고』 개찬설이 성립되지 않았음은 이미 논증한 바이다. 한편으로 가령 백보 양보해서 시모조의 주장대로 『동국문헌비고』가 개찬됐다고 가정할 경우, 신경준은 그러한 개찬을 감히 행할 만큼 우산도 즉 송도를 조선 영토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결

론이 된다. 그렇게 확신했던 근거는 안용복 등이 우산도(왜가 말하는 송도)를 거쳐 일본에 가서 송도는 자산도이며 조선의 영토임을 호소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그러한 신경준의 확신이 관찬서 『동국문헌비고』에 기술되어, 그 책이 완성된 1770년에 그것이 조선의 공식적인 인식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 확고한 사실 앞에서는 근거 없는 개찬설 등은 하찮은 문제이다. 게다가 조선은 1770년 이후에도 『만기요람』이나 『증보문헌비고』 등의 관찬서에서 우산도 즉 송도를 조선 영토로 재확인 하였던 것이다.

8. 맺음말

시모조의 자료 인용 방법은 독특하다. 자료의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어떤 부분만을 대서특필하여 저자의 의도와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춘관지』를 인용할 때 안용복이 일본인을 울릉도에서 쫓아내고 우산도까지 쫓아갔다는 기술을 무시하고, 임진왜란 이전의 역사부분에 적힌 “우산·우릉(羽陵), 울릉(蔚陵), 무릉(武陵), 의죽(磯竹) 모두 음이 와전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이맹휴의 춘관지에는 우산도를 울릉도라고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춘관지』는 우산도와 울릉도를 각기 다른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시모조는 두 섬은 하나의 섬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모조는 『동국여지지』의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은 현의 정 동쪽 바다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기술을 무시하고, “일설에 우산·울릉은 본래 같은 섬”이라는 일설의 부분만을 강조하여 『동국여지지』의 글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같은 섬의 다른 이름(동도이명, 同島異名)”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자료를 자의적으로 인용한다면 저자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일조차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논설을 신뢰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방식에 덧붙여 시모조는 자주 자기 자신의 주장을 바꾸

44) 下條正男, 「『竹島問題』の本質がわかっていない日本政府」, 『正論』, 2006. 7, pp. 276-7.

45) 下條正男, 앞의 책, 2006, p. 24.

46) 下條正男, 「實事求是」 제22회.

는 것이 특징이다.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나오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해석을 자주 바꾸었다든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의 해석을 여러 번 바꾸었다든지 그 예는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시모조는 자기의 거듭된 변설(變說)을 자각한 모양이다. 차후 시모조가 흔들림 없는 정설을 가지고 자의적인 인용을 없앤다면 그 때 비로소 그와의 학술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Park Byoung-sup

1. Insistence upon alteration of *Dongkuk-Munhun-bigo*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Shimojo Masao's (下條正男) assertion concerning with alteration of *Dongkuk-Munhun-bigo*. First of all, *Chun-gwan-ji* by Lee Meng-hyu did not say one island theory about Usan and Ulleung. Shimojo ignored a clause “Songdo (松島) is Usando (芋山島)” in *Chun-gwan-ji* and drew a wrong conclusion that ‘Ulleungdo Dispute’ at *Chun-gwan-ji* described Usando is very Ulleungdo. Next, Shimojo insisted that *Dongguk-Yeojiji* (東國輿地志) described that Usando is the same island as Ulleungdo but different name, ignoring a clause “Two islands, Usando and Ulleungdo are lying directly east sea off the village” in *Dongkuk-Yeojiji*. Shimojo's insistence upon alteration of *Dongkuk-Munhun-bigo* is not incorrect because his insistence

is grounded on arbitrary quotation of the materials. Moreover, *Yeojiji* cited in *Dongkuk-Munhun-bigo* is not found in present day and is different from *Dongkuk-Yeojiji*. I review about the scope of citation in *Yeojiji*.

2. Seokdo(石島) in Daehan Imperial Ordinance 41

Shimojo insisted Seokdo was Seohangdo (鼠項島) in *Korean Sailing Directory* (1910) because Korean pronunciation of Seokdo and Japanese pronunciation for Seohangdo, ‘ソコウトウ, Sokoto’ was similar. But the original sea map by the Hydrographic Department described Seohangdo as ‘Somoku Somu’. Seohangdo was not called as Sokoto. The name of ‘Somoku Somu’ was originated from ‘Seom mok’ (島項) drawn in Lee Gyu-won's ‘Ulleungdo exterior island’.

3. Takeshima and Matsushima in the *Japanese Geographic Review* (日本地誌提要)

A geographer of the Meiji era, Tanaka Akamaro (田中阿歌麻呂) explained that *Japanese Geographic Review* (日本地誌提要) published by Japanese government described that Takeshima was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in *Geographic Review* (地學雜誌). So, Matsushima was out of Japanese territory too, because it made a pair with Takeshima in *Japanese Geographic Review*. The pair meant Ulleungdo and Dokdo. Therefore, I asserted that Tanaka interpreted the two islands, namely Ulleungdo and Dokdo as out of Japanese territory. While, Shimojo insisted my opinion is contrary to Tanaka's intention. However, Shimojo's comment is not correct.

4. Takeshima and Another island in Dajokan's Decree

Shimojo has often changed his opinion about ‘Takeshima and

편집위원 : 김화경(영남대)
박흥규(영남대)
배진수(동북아역사재단)
오상학(제주대)
정갑용(영산대)

獨島研究

제 7 호

2009년 12월 20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이 효 수

편집인 : 김 화 경

발행처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TEL : (053) 810-3686

FAX : (053) 810-4704

인쇄처 : 영 광 기 획

053) 851-8987

Another island' which are excluded from Japanese territory by Dajokan(太政官). In recent, Shimojo insisted that 'Another island' meant Ulleungdo, using later material, *Takeshima Kosho* (竹島考證) which have no relationship with Dajokan's Decree. However his insistence is not correct. 'Another island' should be Dokdo according to relevant materials on the days.

5. *Korean Sailing Directory*

Shimojo asserted that Dokdo is not included in Korean territory because the east end of Korea is located at 130 degrees 15 minutes of east longitude in "Situation" of *Korean Sailing Directory* by the "Hydrographic Department". However, the Hydrographic Department was not a organization deciding Korean territory and had not enough knowledge about Korean territory. If the east end of Korea is at 130 degrees 15 minutes of east longitude, it does not include even Ulleungdo. It means that the description at "Situation" is not correct.

6. Insistence about Japanese inherent territory

Shimojo had early admitted that Japan did not recognized Dokdo as Japanese territory before 1905. But he recently started to insist Dokdo as Japanese inherent territory. It is noteworthy.

Key Words: Shimojo, Dokdo, Takeshima, *Dongkuk-Munhun-bigo*, Prime Ministry (太政官), *Korean Sailing Directory*, Inherent Territory

이 논문은 2009년 11월 5일에 투고
2009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9년 12월 30일 간행함